

# 아직도 어젯듯한 그 産婦의 입덧

## 시집을 내는 기쁨과 고통

박라연

시인

나는 바보였다. 아무리 탐나는 신랑감이었어도 아무리 꿈꾸어온 집이었다 해도 걸음을 멈추고 잠시 내 얼굴을, 옷매무새를 찬찬히 들여다 보았어야 했다. 나는 뜻밖의 너무 과분한 선택에 정전된 듯 캄캄한 순간에 그집 문턱을 넘어서 버렸다. 깨끗한 이부자리도 장농도 미처 준비 못한 초라한 신부. 많이 부끄러웠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수그린다는데 얼굴에 시집을 낸 나는 겸허함을 채 갖추기 전이어서 너무 들뜬 나머지 누군가에게 자만심으로 내비치지는 않았을까. 좋은 시를 많이 준비했으면서도 오랫동안 삭히며 살펴보기 위해 기다리다가 시집을 낸 선배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웠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쓸쓸한 가슴에 쓰라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는지. 그런 깨달음은 한참 후에야 내 등을 두드렸다. 미안할 뿐이다. 시집을 낸다는 것은 또 한번의 두려운 탄생이란 것을 몰랐다. 그냥 기뻐만 했다. 등단의 기쁨만 생각했으랴 등단 후의 험난한 길을 예측 못했던 어리석음을 또 한번 뼈아프게 경험한 셈이다. 오직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곳에서 내 몸을 풀 수 있다는 안도감, 자랑스러움, 그런 기쁜 일들과의 만남, 그리고 행복한 안주...아비없이 자란 아이의 슬픔, 버릇없음... 그런 것이었을까. 그때는 기쁘기만 했기에 살아온 날들이 슬픈 자막처럼 한 자 한 자 뚜렷하게 씌어졌다가 사라지면서 안녕. 안녕. 안녕히...

빈 교정에 혼자 남아 주위들던 차디찬 돌맹이 먼 하늘을 향해 힘껏 내던지던 아픈 스무살. 서른 넘어서야 국문학을 공부하며 시를 쓰면서 당당한 시인이 되기 위해 남몰래 흘렸던 차디찬 눈물. 이리라는 낯선 도시에서 스승도 선배도 후배도 없이 시를 모르는 남편과 심지어 겨우 국문학생인 아들에게까지 읽어주며 어떡냐고 묻던 내 눈길. 아주 젊은 신춘 시인을 스승삼으려다 시 한 줄 배우지 못하고 봉변 비슷한 아픔만 경험했던 일. 젊은 시인의 아내에게 혼쫓나고도 다시 화해할 수 있다면 화해하고 내 시를 평가받고 싶었던 나이많은 여자의 정말 오싹해지는 뻔뻔스러운. 정작 등단은 했으나 시 한편 멋있게 발표할 수 없어서 끽거리던 내게 시집을 내보자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마치 내가 거처온 슬픈 날들은 오늘 이런 벽찬 감격을 맞이 위한 여과과정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무렵은 적어도

기쁨뿐이었다. 그러나 웬일인가. 철저히 나를 외면하기 시작하는 일상의 기쁨들. 벼락맞은 여자처럼 내 작은 공간에서 끽거리었다. 일손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채 익지 못한 벼가 가을걷이의 시기 때문에 익은 벼들과 함께 마물로 돌아와 창고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영양분이 부족한 쌀이 되어 어느 집으로 팔려갈지도 모르는 두려움. 그냥 좋아서 서둘러 떠나는 후의 적막감, 당혹스러움. 차츰 나는 중병을 앓기 시작했다. 정말 쓸데없는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소비하면서 달력의 날짜를 지우고 있었다. 퇴원을 기다리는 환자처럼.

거리는 스산했다. 가을은 깊어가고 내마음의 병도 깊어갔다.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 뚜렷한 이유없이 결별의 위기를 맞보기도 했다. 아무런 용건이 없으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뚝, 끊길 뿐. 까닭없는 소외감. 겨울이 빨리왔으면. 하늘도, 나무도, 바위도 뽕뽕 얼어버리면 내 슬픔, 죄, 무력증도 함께 얼어가겠지. 기적처럼 기운을 차리고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열심히 시 쓰고. 그런 날이 다시 올까.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부끄러운 기억들. 보고 싶은 얼굴들. 좀더 깨끗하게 살았더라면...옛친구, 옛사람들에게 왜 좀더 너그럽고 반듯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없었을까. 돌이킬 수 없는 날들. 창너머 부는 바람. 세상의 나뭇잎들은 각자에게 어울리는 이별을 하고 있을 때 거리의 은행잎들이 방향하는 내 발길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눈 밑의 검은 그림자만 짙어가고 밖에서 바라보는 나는 너무나 많은 행운을 누리는 부러운 여자, 배우른 여자의 공허감 그 이상은 아닐 터였다. 혼자 일어서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가. 아이를 낳아도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야 하는 엄마의 심정이었다. 사산되지는 않을는지. 수년간 만지고 쓰다듬으며 깊은 밤, 신세벽에 빛어냈던 그 많은 언어들, 구슬땀기가 왜 갑자기 생소해지고 두려울까.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만 활자화되는 것뿐인데 왜 이다지도 초조할까. 인내심이 부족하고 지성의 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겠지.

혹 다른 선배 시인들도 조금은 이랬을까. 그분들은 그 순간들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습작시절부터 철저히 혼자였던 나는 시집 기다리는 열병 또한 철저히 혼자 치러내면서 울었다. 남자였다면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술이라도 마시고 담배라도 피울 수 있었으련만 맨승맨승한 얼굴로 속에서 쳐들어 오르는 알길없는 불안, 불면증을 혼자서 다스려야 했다.

나를 찾아주는 선배도 후배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기에 그냥 알게 된 내 시의 유일한 독자이면서 파수꾼이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버렸다. 여러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시 잘 쓴다고 늘상 아껴주던 그분마저 한사람의 내면을 훑쳐보면서 많이도 실망했을 것이다.

가을 어느날이 출산예정일이었던 '평강공주'는 겨울이 깊어 한해가 저물던 12월 20일이 넘어서야 태어났다. 내가 흘린 눈물의 보상이었을까 책이 잘 팔린다고 했다. 처음엔 개인적으로 나를 아끼는 분들이 많이 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달 후에도 계속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시인이라는 명분으로 간단한 인터뷰도 했다. 나처럼 어리석은 여자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다. 또 나는 몇군데서 다음 시집계획 제안도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생각도 하기 싫었다 이 떨미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중년의 통신대학 출신의 이즘마시인. 그런 미운오리새끼 한 마리를 단숨에 학으로

날아오르게 한, 시집 내주신 출판사에 대한 감사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더 크게 나를 묶어버린 시집 컴플렉스. 시집원고 넘긴 후의 입덧이 지겨워서다. 그 입덧이 잊혀지지 않는 한, 인내심과 지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두번째 시집은 영영 내지 못한 채 내 시인생활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결국 나는 시집내는 기쁨을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시집내는 기쁨, 그 찰나적인 기쁨을 위한 불피우기, 그 불을 혼자서 지피면서 미처 준비 못한 고통을 여기 적나라하게 적은 셈이다. 그러나, 누가 아이 낳는 고통이 잊혀지지 않아서 아이를 그만 낳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함께 맺자고 뜨겁게, 뼈가 으스러지게 나를 껴안아 준다면...

